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0월 26일

CUOMO 주지사, **WESTCHESTER**에 소재한 **PEPSICO** 본사의 현대화 및 확장으로 **PEPSICO**가 **1,100**개의 일자리를 보전할 계획임을 알리다

현대화 및 시설 정비로 1,250개의 건설 일자리 창출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오늘 PepsiCo가 Purchase에 소재한 본사를 리노베이션하여 뉴욕주에 속한 자사 식음료 회사의 1,100개 일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2만 평방피트 사무공간을 완전히 재개발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는 약 1,250개의 현지 건설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뉴욕에 PepsiCo를 남겨두는 일로 우리는 Westchester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에 중요한 1천개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1천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나면 지역 경제가 즉시 활력을 되찾고 PepsiCo는 앞으로 몇 년 간 New York 최대 고용업체로써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PepsiCo는 1970년 뉴욕시에서 Purchase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이 시설물은 최소한의 리노베이션으로 42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회사의 시설 용량은 최고 15%까지 늘어나고 전세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보다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오래된 기술, 대역폭, 전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리노베이션을 통해 오래된 인프라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첨단 솔루션으로 교체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22%까지, 용수 사용량을 57%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2%까지 감소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리노베이션으로 4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우리의 세계 본사는 회사의 미래 요구에 발맞추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라고 PepsiCo 사업부의 수석부사장 Rich Delaney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직원들에게 보다 연속되고 협력적인 작업 환경을 구축하며, PepsiCo가 더 뛰어난 인재들을 회사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본사를 현대화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Cuomo 주지사와 Westchester 카운티를 사업하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신 뉴욕주 및 지역의 모든 관리분들에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Korean

ESD(Empire State Development)를 통해서 뉴욕주는 PepsiCo가 세계 본사를 Westchester에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데 2억4,300만 달러의 투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400만 달러의 Excelsior 세금 공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사장, CEO & 커미셔너인 Kenneth Adams은 말했습니다, “PepsiCo와 1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Purchase에 유지하게 된 것은 Westchester의 경제에 커다란 승리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뉴욕주는 자체 역량을 전략적으로 십분 발휘하여 세계 최대 식음료 업체 중의 하나를 계속 뉴욕에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PepsiCo를 포함해 이에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사를 이곳에 계속 유지하고 재개발하기로 한 결정은 뉴욕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갈 비즈니스 지역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PepsiCo는 리노베이션 시설에 대해 LEED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리노베이션을 통해서도 자연채광을 더욱 살리고, PepsiCo 임직원들이 보다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근무 환경을 구축하며, 교육 역량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Purchase 사무공간의 리노베이션은 2013년 1/4분기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제공한 금융 인센티브 외에도 Westchester 카운티 IDA는 PepsiCo에 판매세 면제를 승인하였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 행정부 임원 Robert P. Astorino는 말했습니다, “글로벌 회사로서 PepsiCo는 세계 어디에서든 본부를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여 PepsiCo를 Westchester에 계속 두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Westchester 재투자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이 카운티의 미래에 대한 신념의 표시이며, 지역 경제에 활력소이자, 시와 기업 파트너십의 모델 역할을 한 50년 관계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PepsiCo의 모든 분들이 Westchester에 보여주신 신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과거 18개월 동안 Westchester 카운티와 관련된 PepsiCo 부동산 발표 중 두 번째 발표입니다. 이 회사는 2011년 3월 뉴욕 Somers에서 임대를 갱신하였습니다. 일부는 ESD가 제공한 4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Westchester에서 9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